

## 최악의 현장에 파송된 70인 제자 디도

### -복음으로 여는 디도서-

다니엘 6:10, 디도서 2:11-15

정윤돈 목사님

\* **단6:10** 엘리야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뒷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 **딤후2:11-15** 믿음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우주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주셔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영원토록 행복한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고 둔하여 불순종하여 불신앙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놓치고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6가지, 12가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회복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현장 237나라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단메시지를 붙잡고 현장에 선포하여 70현장을 살리는 지교회의 응답을 받게 하시며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얻고 치유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목숨을 걸어 이 복음을 증거할 만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나가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미션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라오스, 캄보디아 선교캠프를 다녀왔다. 현지 제자를 키워서 RTS까지 입학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방콕과 파타야를 다녀왔다. 방콕은 국민의 90%가 불교이다. 과거의 방콕, 태국을 생각하면 에이즈가 떠오른다. 이상승배와 타락이 동반되는 것이다. 라마 10세까지 왕이 되었는데 부인이 몇 십 명이나 된다. 윤희사상을 믿으니까 착하게 산다. 그러나 노예생활, 동성애가 많다. 우리가 70나라를 살리려면 현장을 보고 재해석을 해줘야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70현장, 70나라, 237나라를 두고 기도할 때 내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실천해야할까 생각한다. 그러다보니까 나는 과거에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다시 하는데 많은 현장의 문들이 열리고 있다. 새로운 현장을 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정화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기록해야 하고 말씀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도 마찬가지로 죽게 된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니엘은 최악의 현장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은 영적서밋이었다. 그 당시에는 다른 신을 믿게 되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명령을 내렸다. 다른 신에 절을 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록 도장을 찍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조용히 자기 집에 가서 그리스도가 오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서밋타임을 가졌다. 모든 현장은 가보면 최악이다. 여러분들은 그 현장을 살릴 빛이 되어야 한다. 그 인턴쉽을 교회 안에서 철저히 해야 한다. 혼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사무엘은 어린 유아, 유치 때부터 알았다. 지금 램프들이 복음전하는 것을 보면 너무 기쁘다. 다니엘도 어린 10대였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타락하지 않고 친구들과 뜻을 정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실한 비전과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상관없었다. 서밋타임에 성공한 다니엘은 모든 응답을 받았고 최악의 현장을 최고의 응답의 현장으로 변화시켰다. 복음이 필요한 최고의 현장인 것이다.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다. 모든 현장이 마찬가지이다.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타락한 현장이다.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그런 것이다. 디도는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레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중직자를 세우고 교회와 성도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말하고,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는 사역을 하였다.

1. 첫 번째에서는 먼저 최악의 현장인 그레데 섬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디도는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레데는 어떠한 현장이었을까? 역사적으로는 크레타 섬이라고 말하는 곳이다.

① 역사적으로 우상이 가득한 현장이었다. 그리스를 대표하는 제우스가 탄생했다는 전설이 있다. 그래서 그레데 섬은 오래 전부터 우상문화가 가득한 곳이었다. 최근에 발견된 문명인데, 거의 인류최초에 가까운 문명인 미노아문명의 발상지이다. 그러나 과거에 우상숭배한 문명이다. 결국에는 그 현장은 멸종하고 만다.

② 이러한 영향인지 영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성도들이 많았던 현장이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와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창세기 3장인 ‘나’중심인 것이다. 교회, 목회자, 부모님, 선생님에 불순종하는 체질인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과 사탄에게는 아주 순종을 잘한다. 이것이 창세기 3장 체질이다. 내가 망하는 길에는 순종을 잘 하지만 나를 살리는 길에는 순종하지 않는다. 사이비 이단들은 다 속인다. 목적은 1장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이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단들의 특징이다.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여러분이 정직하게, 진실하게만 말해도 성공한다. ‘어떤 선지자’는 BC.600년 전 철학자 에피메니데스의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여 디도에게 보낸 것이다. 에피메니데스라는 철학자가 그레데 사람은 항상 악하다고 한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에 와도 그 체질이 갑자기 변하는가.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지 디도가 영적 지도자로 그 현장을 이끌 수 있지 않은가. 디모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러한 편지를 쓴 것이다.

그레데 사람들은 또한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것이다. 안식일도 지켜야 하고 제사도 지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론을 붙인 것이다. 나머지는 오직 예수 할 때 따라오게 되어있다. 그러나 오직 예수가 되지 않으니까 거듭나지 못하는 것이다. 교회만 다니고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내가 왕이 되었을 때 기분이 나쁜 것이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 이 사람들 중에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더럽고 믿지 않는',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사람들'도 있었다. 16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그레데 사람들은 '가장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 많았다. 나만 생각하니까 선한 일과 관계없고 나만 잘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는다. 나를 살리는 길이 오직 예수이다. 그래서 자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것이다. 그 응답의 시간이 쏟아져올 때가 있다. '세상에는 나같이 복 받은 사람이 없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러한 어려운 현장에 사도 바울은 남은 자 램넛트 70인 제자인 디도를 파송했던 것이다.

(2) 그렇다면 디도는 어떠한 인물이었을까?

① 디도는 이방인 다문화 TCK출신이었다. 램넛트 중에 카자흐스탄에 국가대표를 했던 체조선수가 있었다. 램넛트들에게 체조를 가르치는 것이 어떠냐고 했더니 반응이 별로 없다.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11년 동안 체조운동을 강요받았던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현장을 포럼했다. 현장의 TCK를 살려야 한다. 그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TCK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나의 실천을 도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모든 축복으로 이어진다.

② 디도는 이전에도 고린도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있었다. 디도는 문제해결사였다. 램넛트들도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어디서든 문제해결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중간사역자인 것이다. 즉, 디도는 화평케하는 자, 지혜로운 자, 성령충만한 자였다. 우리들도 이러한 중직자, 램넛트, 교역자가 되어야 하겠다. 부족하고 안 되더라도 알고 있으면 된다. 오직 예수님이 주인되면 주님께서 하신다. 인정만 해도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와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한다.

③ 다음으로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그레데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미션을 부탁받은 제자였다. 여러분은 목사님이 언제든지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 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즉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 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교회는 장로님이 서야 든든히 선다. 가는 곳곳마다 장로님들이 있는데, 헌신하고 벽돌로 교회를 짓던 분들이 한두 명 있다. 그 분들을 보면 신앙의 향기가 느껴진다. 중직자를 세우는 역할을 디도가 하는 것이다.

2. 두 번째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와 70인 제자들에게 주신 도전 미션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기준을 알려 주었다. 디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계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쁘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목사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고집이다. 다 양보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들에게 절대목표를 준 것이다.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복음전파, 전도에는 아주 관계있는 것이다.

(2) 성도들의 삶의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것에서도 빛이 되어야 하겠다.

① 디도서 2장 2절에서 3절이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② 2장 4절에서 5절이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은 성경이어야 한다.

③ 2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이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④ 2장 9절에서 10절이다. "중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흠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어즈성경핸드북에는 디도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디도서는 선한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선한 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기 위하여 선한 일에 도전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리겠다. 이제 우리도 디도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보좌의 능력과 은혜로 황폐한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하겠다. 우리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을 찾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거듭났음을 보게 될 것이다.

결론으로 디도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들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어려운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려울 것이 없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있다.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나라에 디도와 같은 제자를 파송하여 현장을 치유하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최악의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24시간 기도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도전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위기 앞에서 조금만 집중해도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5. Practice, 지속적인 실천이다. 이번 주간은 내가 도전하고 살려야 하는 그레데와 같은 70현장은 어디인지 적어보기를 바란다.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시스템을 셋팅하기 위해 최악의 현장도 복음으로 살리는 남은 자 70인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디도서를 통하여 소중한 진리의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직 은혜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70인 제자, 남은 자의 응답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